

■ 괴운(槐雲) 칼럼



성공을 끌어당기는 법칙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옛그제 어느 친구가 필자에게 ‘성공을 끌어당기는 법칙’이란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을 읽어보니 근래 세계적 유명 인사 10명의 성공철학을 간단하게 정리해 담은 내용으로 특히 안동권문의 청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심어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여 피력해 본다.

1.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주머니 법칙”이다. 투자의 귀재로 미국 월가의 전설인 워렌 버핏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인 것은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한 가지 일보다는 보다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주요 소득원 외에도 많은 돈을 버는 주머니를 계획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주영(鄭周永)의 “긍정적인 사고의 법칙”이다. (고)정 회장은 긍정적인 사고는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지난번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모자람을 인정해야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빌 게이츠(Bill Gates)의 “독서의 법칙”이다. 마이크 로소프트 설립자인 억만장자 빌게이츠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가능한 많이 읽는 습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독서란 기본적으로 생각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깊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방법까지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의 “솔직함의 법칙”이다. 미국 유명 방송인 윈프리 여사는 직함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욱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하되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직함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돈을 모을 수 없다. 5. 경주 최(崔) 부자의 “나눔의 법칙”이다. 나눔의 법칙이란 작은 것도 나눌 수 있을 때 참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없다.

6.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의 “역발상의 법

칙”이다. 미국 석유산업 거부 록펠러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과 특특 튀는 발상의 전환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청개구리식 역발상이란 결국 소신 있는 행동이다.

7. 카네기(Carnegie)의 “근면의 법칙”이다. 미국 철강 산업 거부 카네기의 근면의 법칙은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에 대한 자세와 몸가짐이 바르지 않다면 근면함도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에 그런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8. 네이션 로스차일드(Nathan Rothschild)의 “정보수집의 법칙”이다. 한때 유럽금융의 왕자였던 그는 정보가 실력이라고 했다. 발 빠른 정보수집은 결국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다. 결국 고급 정보란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참된 정보로 빛을 발할 수 있다.

9. 손정의(孫正義)의 “메모의 법칙”이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 회장의 메모의 법칙은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생각이나 관찰한 것을 보고 느낀 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때때로 적어둔 다양한 메모는 위기의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메모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메모는 이야기의 요점을 파악해서 적어두는 것이 좋다. 10. 하워드 쉘츠(Howard Schultz)의 “인맥의 법칙”이다. 전 스타벅스 회장인 그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상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고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고를 수 있는 안목도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알아보고 먼저 이야기하며 ‘마당발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상 열 가지 법칙은 현 세기 유명 재력가들의 성공철학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추밀공파 문충공 추향제 봉행

문충공 추향제가 충북 음성군 생곡면 방축리에 위치한 양촌 권근 삼대 묘소에서 봉행되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 권병기 안숙공 종중 회장, 권혁찬 태사 문학회 회원, 권인식(응인), 권혁풍(서울), 권태환(양주) 축진, 권행완 대중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등 후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날씨가 쌀쌀한 데도 양촌 선조 추향제에 왕림해 주셔서 고맙다. 오늘 네 분의 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을 했다. 훌륭한 선조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숙공 사당 이 붕괴 일보 직전이었어서 낫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충청북도 와 음성군과 협의하고 있다. 오늘 추향제는 문충공, 문경공, 안숙공, 익평공 순으로 지내도록 하겠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공 향사는 초헌관 권혁중, 아헌관 권오석, 종헌관 권혁



원, 집례 권오상, 대축 권오달 등으로 분정하였다. 문경공 추향제는 초헌관 권태수, 아헌관 권영무, 종헌관 권오찬 등으로 분방하였다. 안숙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병기, 아헌관 권영천, 종헌관 권영길, 대축 권병관 등으로 분정하여 헌작하였다. 후손들은 향사가 끝나자 주회측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권행완 편집국장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목민심서(牧民心書)』와 ‘민(民)’을 위한 정치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예전 암울했던 5공 시절 이야기다. 당시는 이른바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주요 일간지에 “대통령 전용기에 목민심서 비치”라는 기사가 대서특필 됐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보여주기 위해 ‘위장쇼’를 한 것이 라지만,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했던 전두환이 어떻게 백성을 향한 한없는 애정을 담아낸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읽어낼 수 있는가? 정말 『목민심서』와 전두환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고 년센스였다.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덕분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명저 『목민심서』가 역설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그 책을 완역하여 펴낸 곳이 바로 5공 군사정권에 의해 폐간의 칼날을 맞았던 ‘창작과 비평사’였다.

『민』을 위한 위대한 명저 『목민심서』, 도대체 『목민심서』는 어떤 책인가? ‘목민(牧民)’은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말하니, 쉽게 말하면 지방행정 지침서 내지는 행정실무요령서다. 지방관이 임지에 부임해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지키고 알아야 할 제반사항을 다룬 책이다. 형법 혹은 형사재판의 문제를 다룬 『흙흙신서(欽欽新書)』, 국가 제도와 국정운영 전반의 개혁을 제시한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더불어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의 핵심에 위치하는 ‘정법(政法) 3서’로 불리는 저서다. 다산은 〈자찬묘지명〉에서 이 책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법제를 그대로 추종해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율기(律記)」, 「봉공(奉公)」, 「애민(愛民)」으로 3기(紀)로 삼고,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으로 6전(典)을 삼은 다음, 마지막은 진황(賑荒)으로 하였다. 각 편마다 6조를 설정하니 조목별로 고급의 자료를 찾아 망라하고 간고, 허위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폭로한 이 내용을 목민관들에게 제공하면 아마 한 명의 백성이라도 그 은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나 정약용의 마음이다.”고 강조 했다.

무엇보다도 백성, 곧 ‘민’을 중심에 두고 ‘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얘기다. “천하에 가장 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도 백성이요, 천하에 가장 높아서 산과 같은 것도 백성이다.”고 하여 ‘민’을 하늘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부령 도호부사로 부임 가는 이중영을 송별하다[送富寧都護李鍾英赴任序]〉라는 글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며,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臺諫)을 두려워해야 하며, 더 위로는 조정(朝廷)을 두려워하고, 또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백성과 하늘은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고 몸으로 거느리고 함께 호흡하고 있으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것이다. 무릇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의 조선의 현실은 지방관이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백성을 오히려 수탈과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둘러싼 정치부패,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이다.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수취 제도가 지방관의 부패로 얼룩지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내몰려야 했다.

『“아이 낳은 죄로구네!”』 1803년 가을 강진의 갈밭마을〔蘆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다산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어떤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군보(軍保)에 이름이 올라 이정(正正)이 군포 대신 소를 뺏아가니, 그 백성이 칼을 뽑아 자신의 양경(陽莖)을 스스로 베면서 ‘내가 이 물건 때문에 곤약을 받는다.’라며 울부짖었다. 그 아내가 남편의 양경을 가지고 관가에 찾아가니 거기서 피가 아직 뚝뚝 떨어지는 데, 아내가 울며 호소했지만 문지기가 막아섰다.” 해서 다산은 이 사실을 듣고 저 유명한 〈애절양(哀絶陽)〉을 지었다.

갈밭머리 젊은 아낙 울음도 서러위랴
蘆田少婦哭聲長
관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통곡하네
哭向縣門號蒼蒼
전쟁 나가 못 돌아온 남편 있을 법 하건만
夫征不復尙可有
사내가 양물 잘랐단 말 들어보지 못했네
自古未聞男絕陽
시아버지 삼년상 이미 지났고, 갓난아인 배냇물로도 안 말랐는데
舅喪已編兒未縗
삼대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고
三代名籤在軍保
달려가 억울한 호소해도 범 같은 문지기 바티어 쏘고
薄言往愬虎守閤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오
里正咆哮牛去早
남편 칼 갈아 방안에 들어가더니 피가 낭자한데
磨刀入房血滿席
스스로 한탄하길 ‘아이 낳은 죄로구네!’
自歎生兒遭窘厄

〈애절양〉의 전반부인데, 요즘 같으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사건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의 수령된 자가 백성의 실정을 돌보지 않고 다만 통속적인 관례에 따라 군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약에 바친 백성이 이러한 변고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니 지독히 불행한 일이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닌



가.”라고 적고 있다. 이런 참상을 목격하는데도 유배지에서 다산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글을 쓰는 것 외에는 없었다.

결국 다산의 『목민심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지방관의 수취와 횡포로 인해 생존적 위기에 놓인 민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 다. 다산은 〈자서(自序)〉에서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둬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을 모른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의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진구멍을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다. 어찌 슬프지 아니 한가?”라고 한탄했다.

그래서 ‘심서(心書)’라 한 것도 “‘목민(牧民)’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이다. 유배객의 몸으로 생각은 있으나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동참하려 했음이다. 해서 작품의 마지막에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객장에서 거둬 〈시구편(鳴鳩篇)〉을 읊”는 것으로 대응해 야만 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려던 정조의 개혁정치가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보수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역사의 배신 앞에서 다산은 이런 글을 씀으로써 역사의 횡포에 맞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 ‘민’을 위한 다산의 『목민심서』는 이른바 정치와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서울지역종친회 제2회 정기총회

서울지역 종친회 제2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회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고견으로 유능한 인재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종친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일 시 :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12시
- ♣ 장 소 : 서울 동대문구 회경동 그집(권혜숙이네)
- ♣ 교 통 : 전철1호선 외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0분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1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56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56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5년 12월 21일(일) 10시(시간 엄수)
- ♣ 집합장소 :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 ♣ 산 행 지 : 인왕산 둘레길
- ♣ 준 비 물 :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5년 1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